

여성결혼이민자 인적자본의 특성 및 취·창업 지원 방안 연구*

A Human Resources Study on Women Immigrated through Marriage
and How to Improve their Employment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손기영**

Gyeonggido Family & Women's Research Institute
Research Fellow: Kiyoung S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정책제언 |
| II. 선행연구 고찰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Previous studies on women who immigrated through marriage were focused on the frictional issues within the couples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language tutoring. However, for the long-term integration of these women into society and the acquisition of status, it is most important to increase their economic value. Indeed many such women are facing economic difficulties, and have a strong desire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economic self-sufficiency of these women through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We analyze their education level and employment experience and attempt to find the most effective policies to support them. We take particular interest in their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propose policies and frameworks for supporting their successful enterprise creation.

* 본 연구는 2009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방안 연구」의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수행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손기영 (s-kiyoung@gfwri.or.kr)

Key Words : 여성결혼이민자(Married Female Immigrants), 취·창업 지원(Self-Support Mode), 여성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Economic self-sufficiency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0년 이래로 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 외국여성들과 결혼하는 한국남성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통계자료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 4.8%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5.2%, 2003년 8.4%를 거쳐 2004년에는 10%를 넘어선 11.4%, 그리고 2008년에는 11.0%로 나타나고 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근로자와는 달리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정주하는 것을 목표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2006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전국에 “결혼이민자가족센터” 21개소를 지정하였으며 2007년에는 38개소로 확대지정하여 한국어교육, 상담서비스등을 제공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9년에는 100여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중앙부처에서 여성결혼이민자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차원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어 ‘다문화 열풍’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학계와도 연계되어 더욱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까지의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과 관

련연구의 초점은 한국사회 적응과 관련된 사업 및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상이한 문화적 배경과 부부간 결혼에 대한 인식과 기대의 차이로 인한 갈등, 생활적응의 문제가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로 드러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실태조사등을 중심으로 연구와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문제의 시각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접근하게 되면 이들은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없는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계속해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복지정책으로 귀결될 수 있다(윤인진·송영호, 2009).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와 정책의 방향은 결혼이민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어진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설동훈 외, 2006, 정기선 외, 2007)을 살펴보면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무엇보다 열악한 경제상황(높은 실업률, 빈곤율)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장기적 측면에서의 성공적 사회정착과 적응,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번다는 측면 이외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을 확인하고 확인받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정책의 대상으로서 수동적인 지위에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생활정착 사업과 병행하

여 수행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한국어 능력이 거론되는데 한국어 능력의 향상은 교실에서의 한국어교육 수강에서보다는 노동시장에서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인 동료 및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 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는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초국적으로 이동해 온 다문화인이며, 모국과 자신의 민족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그 네트워크는 한국까지 확장된다. 즉, 이들은 세계화의 관점에서 국가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있는 인적자원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측면에서도 이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창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적응을 이루려는 시도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의 교육현황과 취업경험 및 욕구를 분석하고, 현 지원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들을 위한 취업지원방안 뿐 아니라, 창업지원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자영업은 인종, 민족, 국

적, 종교등의 이유로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소수자들이 다수자들의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신분상승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어 왔다. 미국의 한인 이민자들이 자영업을 통해 이민자로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룬 것이라든지 북한에서 이주한 실향민들이 특유의 근검절약으로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한에서 주로 자영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룩한 것은 좋은 예이다 (김귀옥, 1999, Yoon, 1997, 윤인진·송영호, 2009에서 재인용). 물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상황이 이들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인적자본이 부족한 소수자로서 노동시장에의 진입이 어렵고, 진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하에서 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일구기 위해서는 자영업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측면에서의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창업에 대한 욕구를 분석하고, 성공적 창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관련 논문

〈표 2-1〉 연구방법

| 문헌연구 | • 관련 논문 및 자료집, 정책연구보고서 검토 |
|-----------------|---|
|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설문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경기도비 지원으로 한국어 교육 및 취업교육을 수강중인 여성결혼이민자 •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및 취업교육 현황: 교육기관, 가족지원, 이전 교육수강 여부, 희망 교육프로그램 - 취업관련 역량: 본국 및 한국에서의 자격증 취득여부, 한국어 및 컴퓨터 활용능력 - 취업경험 및 욕구: 이전 취업경험, 현재 취업여부, 일에 대한 만족도, 일을 하는 이유, 일에 대한 욕구, 창업욕구, 애로사항, 현 경제수준에 대한 만족도 등 - 응답자 특성: 한국거주기간, 동거가족, 국적취득유무 및 계획, 혼인상태, 배우자 연령, 학력 및 태도 등 |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는 문헌연구와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에 나타나고 있듯이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에서 도비지원으로 한국어교육 및 취업교육을 수강 중인 여성결혼이민자 76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09년 5월에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실태, 인적자본 실태, 취업경험 및 욕구, 창업욕구, 경제적 만족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선행연구 검토

2000년대 들어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여성결혼이민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국제결혼, 결혼적응, 결혼만족 및 가족갈등, 부적응, 문화차이 등에 관한 연구, 국제결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등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정기선 외, 2007). 국제결혼의 증가는 보다 거시적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에 기반을 둔 전지구화가 수반하는 ‘이주’의 형태로 다루어지기도 하며(김현미, 2006),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출생성비의 상승, 농촌·도시 인구이동,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과 세계화에 따른 결과로 이해되기도 한다(김두섭, 2006). 또한 국제결혼의 급격한 증가는 단일민족, 단일문화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었던 한국사회에서 사실상 새로운 변화와 도전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이순형, 2006).

국제결혼의 증가, 즉 한국남성이 외국여성들

과 결혼하는 형태의 국제결혼의 증가는 여성국제결혼이민자들의 숫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현재 국제결혼의 유형으로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이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보다 숫적으로 매우 우세한데, 2008년 한해동안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의 결혼이 8, 980건인데 비해,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은 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28, 163건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남성의 국내이주는 일반적으로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외국인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이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들어 “남성=노동이주”, “여성=결혼이주”의 성별구분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이혜경, 2005; 김이선 외, 2007). 이렇듯 이주영역에서 젠더가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부정적인 인권침해와 상품화된 국제결혼에 대한 문제제기(이금연, 2003; 안양전진상복지관, 2003; 김상임, 2004; 한국염, 2004)가 시작되었고 국제결혼관련 논의 및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성별화된 이주방식으로 정착된 국제결혼이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이주여성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이주여성들이 겪는 폭력과 차별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한 각종 실태조사와 토론회가 진행되었고, 법적·제도적 개선과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이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에 보다 초점을 맞춘 연구들(홍기혜, 2000; 민가영, 2004; 설동훈 외, 2005; 김민정 외, 2006; 김오남, 2006a & b; 양순미, 2006; 한건수, 2006)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뿐 아니라 부계 중심의 혈통주의와 가부장적 가족관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정기선 외, 2007).

여성국제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차이, 언어소통의 문제, 한국인 가족들과의 결혼에 대한 기대 및 인식의 차이 등은 다양한 가족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즉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순수 단일민족 관념이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문화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어려움과 가부장적인 가족관계와 혈연을 중시하는 가족주의로 인해 가족갈등을 경험하게 된다(한국염, 2004). 필리핀이나 베트남처럼 양계적 전통을 갖는 국가로부터 이주해 온 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란 단지 사회문화적인 전통과 관습의 차이가 아닌 성역할과 가부장적인 가족주의로 인한 갈등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정기선 외, 2007). 김오남(2006a)의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부부관계와 관련된 가족생활 요인 영역에서 갈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남성들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경희 외(2006)의 연구에서는 불평등한 결혼관계의 시작부터가 갈등의 요인으로 지적되는데, 한국남성이 결혼과정에 드는 모든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며, 이는 남성에게 자신이 구매자라는 인식을 갖게할 가능성을 높이며, 부부관계의 권력이 전적으로 남성에게 주어지는 불평등을 전제로 결혼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착과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강경애 외(2007)의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과정의 어려움과 욕구를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한국 정착 과정의 어려움의 본질을 한국남성과의 결혼에서 기대한 경제적 풍요로움에 대한 실망과 경제적 소외,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의 차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파생하는 관계 맺기의 어려움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일정정도 한국생활에 익숙해지면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국제결혼

이민자들의 정착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들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은미 외(2007)의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지원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단계별 한국어 교육의 실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배우자 교육, 패키지 교육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홍성희 외(2009)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한국어 교육이 수요가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어 교육과 조리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공주체별로 수립한 결과 유사프로그램이 중복적, 단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양 위주로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전시 행정의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별 운영주체의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별 통합과 연계, 수요자의 개인적 요구와 수준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영역별 통합, 남편과 자녀를 참여시키고 지원하는 가족 대상 프로그램의 통합, 사회에 대한 관심과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한 프로그램 등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 교육프로그램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가 양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숙명여자대학교, 2008)

한편, 국제결혼가족이 증가하면서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제결혼가족 자녀에 대한 연구(정은희, 2004; 오성배, 2005; 안혜령 외, 2009, 우현경 외, 2009)도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데 가족관계보다는 언어와 교육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

력과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을 연구한 우현경 외(2009)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표현어휘력, 구문이해력, 읽기능력에서 낮은 수행을 보여 일반가정 유아들에 비해 언어 발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의 언어능력이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를 비교한 안혜령 외(2009)의 연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가 동일 지역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심이 요구된다.

끝으로 국제결혼 가족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정책연구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되었다.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과정, 전반적인 생활 및 복지실태를 조사하였으며(설동훈 외, 2005), 이 연구에 의하면 이들 가구 중 53%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고, 자녀양육과 보육의 문제, 가족간 갈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2009년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전수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었고, 곧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지역 내 국제결혼의 실태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충청남도(김애령, 1998; 민경자, 2003; 김영주, 2006), 전라북도(이윤애, 2004; 박재규, 2005), 전라남도(한영형, 2006), 강원도(김은숙 외, 2006), 경기도(정기선 외, 2007), 경상북도(정일선 외, 2004)등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국제결혼가족의 현황, 관련 정책,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있다.

2.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 현황

정부의 외국인 지원정책은 2005년도부터 시작하였으며, 이 중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결혼이민자들의 체류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제반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과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정보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후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결혼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취업을 자유롭게 허용하였으며,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응지원체계의 강화를 위해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생활안정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6년 처음으로 전국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21개소를 지정하였으며 2007년에는 38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한국어교육,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9년에는 전국에 100여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외에도 여성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표 2-1> 참조),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은 한국문화 및 가족생활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직업교육 및 경제적 역량 강화에 대한 정책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물론 2008년과 2009년에 들어 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에 있어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취업관련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초기단계이며, 따라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주여성지원단체

〈표 2-1〉 중앙정부의 결혼이민자 지원현황

| 관련부처 | 지원내용 |
|---------|--|
| 보건복지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결혼준비기: 국제결혼 탈법 방지 및 결혼당사자 인권보호, 현지 결혼이민 예정자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한국인 국제결혼 예비 배우자 사전교육 지원 가족형성기: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지원, 외국인 남편 대상 포괄적 정보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기초생활보장 지원 자녀양육기: 다문화가족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산후 돌봄 서비스 제공, 부모·자녀간 자긍심 향상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 강화 자녀교육기: 취학전 영·유아 언어발달지원, 방과 후 인프라를 활용한 학습성장지원,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역량 개발, 빈곤 다문화가정아동 집중지원 가족역량강화기: 결혼이민자 취업·창업지원, 현실적인 정책을 위해 다문화가족의 정책 제안 활성화 가족해체 시: 다문화가족의 문제 실태파악, 무연고 방지 아동청소년보호 모든단계: 다문화가족 등록·서비스 관리 시스템 구축,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 대국민 다문화 의식개선과 다양성 존중의 사회 조성 |
| 여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예방사업: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스템 구축 및 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 지원, 이주여성 자활공간터 설치 |
| 문화체육관광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체계 마련 - 문화멘토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콘텐츠 발굴 - 한국 문화체험 행사 - 지역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
| 교육과학기술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역량 강화 - 한국어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 법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신청요건 완화 - 결혼이민자의 이혼, 별거 시에도 자녀접견을 위해 국내체류 허가 |
| 노동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여성부와 협력) |
| 행정안전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에게도 지방선거에서 참정권 부여 -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차별없는 혜택 제공 |

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참조

로부터 시작된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과 연구, 정책적 지원은 시간이 흐르고, 여성결혼이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이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표면화되는 것과 동시에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논의수준도 다양해지고 있다. 살펴보았듯이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인권문제, 가족 간 갈등문제,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한 적응과정에서의 문제, 한국어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부부 및 가족관계의 틀 안에서 한정되고 있어, 무엇보다 이들의 사회적응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경제적 적응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지원도 상대적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취업관련 교육이나 경제적 자립보다는 한국어 교육, 생활적응, 가족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 개인 및 국제결혼 가족들이 당면한 문제 중 경제적인 문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에 속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2007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소득은 100만원대가 39%로 가장 많고, 200만원대가 37%로 나타나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아, 여성결혼이민자의 30.2%가 취업상태였으며, 구직중인 실업자가 9.6%에 달하고 있고, 비경제활동 상태인 여성들의 대다수인 73.5%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적응을 위한 취업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의 수준을 파악하고, 취·창업욕구, 취업의 장애요인 등을 분석함을 통해 이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응답자들의 출신국적은 중국 한족이 전체의 35.0%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은 32.9%로 그 다음이었으며, 일본과 필리핀(각각 8.1%), 중국 조선족(7.9%), 태국(4.4%), 그리고 몽골(3.7%)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한국거주 기간은 24개월 이하 60.8%, 25개월~60개월 24.7%로 대다수가 5년 이하 거주자였다. 5년을 초과하여 거주한 사람은 14.5%에 불과하였다. 이들의 연령은 20대 이하가 절반이 넘는 53.6%였고, 30대 31.5%, 40대 이상 10.9%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은 9.8%에 해당하는 56명만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서 대다수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음으로 별거중인 1명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가 유배우 상태였는데, 남편의 교육수준은 중졸 또는 고졸이 53.2%로 가장 많고, 대졸 이상은 27.8%로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남편의 취업여부를 살펴본 결과 21.2%가 남편이 현재 취업하지 않았다고 응답해서, 응답자 5명중 1명의 남편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53.9%인 308명은 동거 자녀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동거 자녀수가 1명인 응답자가 174명(30.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명이 76명(13.3%), 3명 이상이 13명(2.3%)이었다. 응답자들의 가족유형을 조사한 결과, 부부로만 구성된 가족이 211명인 3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159명인 27.8%로 두 번째로 많았다. 부부와 시댁식구 혹은 부부와 자녀 그리고 시댁식구로 구성된 경우는 26.3%였다. 그러나

가족이 부부와 친정식구 혹은 부부와 자녀 그리고 친정식구들로 구성된 경우는 3.3%로 적었다. 응답자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199만원이 27.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200~299만원 20.1%, 300만원 이상 7.4%의 순이었고 100만원 미만인 6.1%로 가장 적었다.

끝으로, 응답자들이 본국에서 거주했던 지역은 도시가 327명으로 57.3%를 차지했고 농어촌이 244명으로 42.7%를 차지하여 도시출신이 농어촌출신에 비해 약간 많았다.

2. 인적자본 실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어수준, 컴퓨터 운용능력, 자격증 보유여부, 교육수준을 살펴보았다.

한국어 수준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주관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은 네 가지 영역 모두에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서툰 편이다’가 두 번째로 많았으며, ‘매우 잘 한다’가 가장 적었다. 특징적으로 중국 조선족 여성은 모든 영역에서 타 출신국적에 비해 한국어 실력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몽골 여성 또한 중국 조선족 여성보다는 덜하지만 타 출신국적에 비해서는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말하기 점수는 중국 조선족(3.76점)>몽골(3.05점)>필리핀(2.83점)>일본(2.50점)>베트남(2.46점)>중국 한족(2.45점)>태국(2.40점) 순으로 나타났고, 듣기는 중국 조선족(3.73점)>몽골(3.29점)>필리핀(2.98점)>일본(2.74점)>중국한족(2.63점)>베트남(2.53점)>태국(2.48점) 순이었으며, 쓰기는 중국 조선족(3.22점)>몽골(2.86점)>필리핀(2.78점)>베트남(2.53점)>중국 한족(2.52점)>태국(2.40점)>일본(2.24점)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읽기는 중국 조선족(3.58점)>몽골

〈표 3-1〉 설문조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비율 |
|--------------|--------------|-----|-------|
| 계 | | 571 | 100.0 |
| 출신국적 | 중국 조선족 | 45 | 7.9 |
| | 중국 한족 | 200 | 35.0 |
| | 베트남 | 188 | 32.9 |
| | 일본 | 46 | 8.1 |
| | 필리핀 | 46 | 8.1 |
| | 몽골 | 21 | 3.7 |
| | 태국 | 25 | 4.4 |
| 한국 거주기간 | 24개월 이하 | 347 | 60.8 |
| | 25~60개월 | 141 | 24.7 |
| | 61개월 이상 | 83 | 14.5 |
| 연령 | 20대 이하 | 306 | 53.6 |
| | 30대 | 180 | 31.5 |
| | 40대 이상 | 62 | 10.9 |
| | 무응답 | 23 | 4.0 |
| 한국 국적 취득 여부 | 취득 | 56 | 9.8 |
| | 미취득 | 515 | 90.2 |
| 혼인 상태 | 유배우 | 570 | 99.8 |
| | 별거 | 1 | 0.2 |
| 남편의 교육수준 | 초졸 이하 | 20 | 3.5 |
| | 중졸 또는 고졸 | 304 | 53.2 |
| | 대졸 이상 | 159 | 27.8 |
| | 잘 모름/무응답 | 88 | 15.5 |
| 남편의 취업상태 | 취업 | 449 | 78.6 |
| | 비취업 | 121 | 21.2 |
| | 무응답 | 1 | 0.2 |
| 동거 자녀수 | 없음 | 308 | 53.9 |
| | 1명 | 174 | 30.5 |
| | 2명 | 76 | 13.3 |
| | 3명 이상 | 13 | 2.3 |
| 가족유형 | 부부 | 211 | 37.0 |
| | 부부+자녀 | 159 | 27.8 |
| | 부부+(자녀)+시부모 | 150 | 26.3 |
| | 부부+(자녀)+친정부모 | 19 | 3.3 |
| | 기타 | 32 | 5.6 |
|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 35 | 6.1 |
| | 100~199만원 | 156 | 27.3 |
| | 200~299만원 | 115 | 20.1 |
| | 300만원 이상 | 42 | 7.4 |
| | 모름/무응답 | 223 | 39.1 |
| 본국에서 거주했던 지역 | 도시 | 327 | 57.3 |
| | 농어촌 | 244 | 42.7 |

(3.19점)>필리핀(2.98점)>태국(2.72점)>베트남(2.68점)>일본(2.61점)>중국 한족(2.53점) 순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활용능력은 전체의 49.4%가 '보통이다', 24.3%는 '서툰 편이다', 18.7%가 '매우 서툴다'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컴퓨터 활용은 서툰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활용에 능숙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출신국적은 일본여성으로 '잘하는 편이다'와 '매우 잘한다'가 15.2%였고, 필리핀은 '잘하는 편이다'가 15.2%였다. 또한 컴퓨터 활용 능력을 매우 '서툴다' 1점, '서툰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잘하는 편이다' 4점, 그리고 '매우 잘한다'를 5점으로 하여 출신국적별로 점수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필리핀 여성이 2.9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그 다음은 몽골여성으로 2.81점이었다. 그 뒤로 중국 조선족 2.67점, 중국 한족 2.54점, 일본 2.52점, 그리고 태국 여성 2.48점 순으로 이어졌다.

자격증 보유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한 가지도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82.9%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소지한 자격증은 운전면허로 전체의 8.5%였고, 그 다음으로 많이 소지한 자격증은 5.6%를 차지한 어학관련 자격증이었다. 그 외에 요리·제과·제빵 관련 자격증(1.8%), 공업·기술관련 자격증(1.2%), 교사자격 관련(0.9%), 정보처리 관련(0.7%) 및 의료 및 법률 관련 자격증(0.4%)을 극소수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운전면허자격증의 경우 중국 조선족 여성이 20.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조선족 여성의 한국어 실력이 타 출신국적 여성에 비해 보다 우위에 있어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일본 출신(19.6%)과 중국 한족 여성(10.7%)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

한 어학관련 자격증의 경우 태국 출신(24.0%)이 가장 많이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몽골 출신(19.0%)과 중국 조선족 여성(8.9%)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본국에서도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격증 보유정도가 낮았던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하나도 없다는 응답은 54.8%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서와 비교할 때 본국에서 더 많은 자격증을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그 자격증은 운전면허 자격증이 경우가 1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어학관련 자격증(12.4%)을 소지한 경우가 많았다.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과 공업·기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도 각각 8.1%로 나타났고, 교사관련 자격증을 가진 경우도 6.1%였다. 그 밖에 의료 및 법률관련 자격증 4.4%, 요리·제과·제빵 관련 자격증 3.9% 순으로 나타나서, 한국에서보다 본국에서 더 많은 종류의 자격증을 보유했음을 알 수 있다.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운전면허의 경우 일본 여성들은 대다수인 80.4%가 보유하고 있고, 그 밖에 몽골(33.3%)과 태국 여성(28.0%)도 본국에서 운전면허를 소지했던 비율이 높았다. 어학관련 자격증의 경우는 몽골 여성(28.6%)이 가장 많이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태국(24.0%)과 일본 여성(19.6%)의 순이었다.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은 필리핀 여성이 19.6%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은 몽골 여성(19.0%)이었다. 공업·기술 관련 자격증은 태국여성이 16.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중국 한족 여성(15.5%)이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교육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정규학교를 다닌 연수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7~12년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준이 67.4%인 3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재

학 이상인 경우도 4명 중 1명인 24.2%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는 8.4%로 가장 작았다. 이러한 결과를 출신국 적별로 살펴보면, 대학재학 이상 수준인 13년 이상의 교육연수를 지닌 경우는 일본출신 여성이 6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몽골출신 여성들도 42.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베트남 출신 여성들은 13년 이상 교육연수를 지닌 경우가 7.4%에 불과했다.

한편 응답자 전체의 평균 교육연수는 12.4년으로 우리나라의 고졸 정도의 수준이었고, 가장 높은 여성은 태국출신 여성으로 18.8년이었으며, 그 다음은 필리핀 여성으로 16.2년이였다. 중국 조선족 출신 여성은 15.7년으로 세 번째로 교육연수가 길었다. 반면에 베트남 출신 여성은 10.2년으로 교육연수가 가장 짧았다.

3. 취업실태, 본국 및 한국에서의 취업경험, 취업욕구

조사대상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률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일주일간 수입이 있는 일을 했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체의 15.2%만이 취업상태에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2007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조사 결과 나타난 취업률 30.2%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취업률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본 조사가 입국한지 오래 되지 않은 현재 한국어교육 및 취업교육을 수강중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출신국적별로 취업률을 살펴보면, 중국 조선족 여성의 취업률이 28.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태국여성으로 28.0%였다. 그 뒤로 일본과 필리핀 여성이 각각 21.7%였고, 몽골 여성은 14.3%, 중국 한족 13.5%, 그리고 베트남 여성 9.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상태

인 응답자의 직업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취업상태인 87명 중에서 전문직이 29.9%로 가장 많았는데, 소위 하위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교사, 학원 강사(학습도우미) 등이 주요 직업이었다. 단순노무장치기계조립은 24.1%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서비스직은 21.8%로 세 번째로 많았다. 판매직은 13.8%였고, 사무직 6.9%, 기능직 3.4%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들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총 87명 중 40시간 미만이 72.4%로 나타나서 대다수의 결혼이민자들은 4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인 것으로 분석된다. 40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은 27.6%로 나타났다. 월평균수입은 5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으며, 51~100만원이 39.1%, 101만원 이상인 경우는 18.4%로 나타났다. 구직경로를 살펴보면 사적인 연결망인 한국인 및 본국인 친구, 이웃, 가족 및 친척의 소개로 취업하였다는 응답이 5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공기관, 외국인상담소 및 사설 직업알선기관 등 각종 기관을 통해 일을 하게 된 경우가 23.0%로 나타났다. 직업만족도는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49.4%로 나타났고, ‘불만족한 편’이거나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18.3%로 나타났다.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육아 및 집안일’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17.2%, ‘노동조건’ 13.8%,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 11.5%, ‘별로 어려움이 없음’ 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는 이유는 ‘자녀 교육비 충당’, ‘가족의 생계유지’, ‘생활비 보충’이 각각 21.8%로 공동 1위로 나타나 경제적 이유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미래대비’가 17.2%로 나타났고, ‘자기발전 위해’ 일한다는 응답이 14.9%로 나타났다.

본국에서의 취업경험을 알아본 결과, 75.8%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본국에서 일을 한 경

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4명중 3명은 한국에 오기 전에 일을 한 경험이 있었다.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조선족 여성은 대다수인 95.6%가 취업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반면 베트남 출신 여성은 절반이 약간 넘는 56.9%가 취업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취업경험이 없는 편이었다. 본국에서 일을 했던 여성들이 종사했던 직업으로, 회사원·은행원 등 사무직이 24.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전문직으로 17.7%였는데, 이에는 의사·변호사 등 고위 전문직보다는 교사·학원강사(학습도우미) 등 하위 전문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외에 판매직(16.7%), 단순노무장치기계조립(16.5%), 서비스직(12.6%), 기능직(9.9%), 그리고 농림어업(1.9%) 등의 직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국에서의 취업경험에 이어서 과거 한국에서의 취업경험을 알아보았다. 즉 현재는 비취업 상태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한국에서의 취업경험을 물었다. 그 결과 현재 비취업상태인 여성 484명 가운데 14.0%가 과거 한국에서 취업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출신국적별로는 중국 조선족 여성이 40.6%로

취업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몽골 여성이 27.8%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 다음은 일본여성이 19.4%의 과거 취업률을 보였으며, 베트남 여성은 2.9%로 과거 취업률이 가장 낮았다. 취업직종으로는 단순노무·장치·기계조립직이 41.2%로 타 직업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전문직은 두 번째로 높아서 16.2%였고, 기능직 14.7%, 서비스직 13.2%, 사무직 8.8% 순이었다. 판매직은 5.9%로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비취업 상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난 한달 동안 구직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구직시도를 한 여성은 전체 비취업자의 14.0%로 나타났다. 출신국적별로는 중국 조선족 여성의 구직시도 비율이 40.6%로 월등하게 높았고, 그 다음은 몽골 여성들로 27.8%의 비취업 몽골여성들이 한달 이전부터 조사시점 사이에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일본 여성들로 비취업 여성의 19.4%가 구직시도를 하였다고 응답했다.

또한 비취업 상태에 있으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경제활동 여성들만을

〈표 3-2〉 출신국적별 구직시도 경험

(단위: %, 명)

| | 중국 조선족 | 중국 한족 | 베트남 | 일본 | 필리핀 | 몽골 | 태국 | 전체 | 차이검증 |
|-----|-----------|----------|-------|-------|-------|-------|-------|-------|-------------------------|
| 있다 | 40.6 | 17.3 | 2.9 | 19.4 | 13.9 | 27.8 | 16.7 | 14.0 | $\chi^2=9.45$ p<.001 |
| 없다 | 59.4 | 82.7 | 97.1 | 80.6 | 86.1 | 72.2 | 83.3 | 86.0 |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사례수 | 32 | 173 | 171 | 36 | 36 | 18 | 18 | 484 | |

〈표 3-3〉 출신국적별 향후 취업 의향

(단위: %, 명)

| | 중국 조선족 | 중국 한족 | 베트남 | 일본 | 필리핀 | 몽골 | 태국 | 전체 | 차이검증 |
|----------|-----------|----------|-------|-------|-------|-------|-------|-------|-------------------------|
| 일하고싶다 | 92.0 | 87.6 | 83.0 | 80.8 | 82.1 | 100.0 | 93.3 | 86.0 | $\chi^2=6.34$ p<.001 |
| 일하고 싶지않다 | 8.0 | 12.4 | 17.0 | 19.2 | 17.9 | - | 6.7 | 14.0 |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사례수 | 25 | 129 | 147 | 26 | 28 | 16 | 15 | 386 | |

대상으로 향후 취업희망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향후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응답이 대다수인 86.0%를 차지하였다. 출신국 적별로는 몽골이 출신국적인 응답자는 전원이 취업을 원하였고, 태국 여성(93.3%), 중국 조선족 여성(92.0%), 중국 한족 여성(87.6%) 순으로 향후 취업을 하고 싶어 하였으며,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일본 여성조차도 취업을 원하는 비율이 80.8%에 달했다.

향후 일을 하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직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1순위로 가사양육이 100%를 차지하였으며, 2순위로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응답이 97.8%를 차지하였다. 희망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미만이 37.7%, 40시간을 포함하여 그 이상이 62.3%로 나타났다. 희망 월수입은 전체의 37.3%가 60~100만원이라 답하였고, 35.2%는 110~150만원을 희망하였다. 50만원 이하와 200만원 이상은 각각 9.9%, 3.9%로 낮은 편이었다. 이를 출신국적별로 비교해보면, 110~150만원을 가장 선호하는 국적은 중국 조선족 여성(47.8%)이었으며, 그 다음은 몽골(43.8%), 중국 한족(40.7%)이었고, 태국(71.4%), 일본(57.1%), 베트남(45.1%), 필리핀 출신 여성(43.5%) 등은 60~100만원을 더 선호하였다. 출신국적별로 희망하는 평균수입을 살펴보면, 156만원으로 몽골여성의 희망수입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중국한족 여성으로 140만원이며, 중국 조선족 여성은 130만원, 베트남 여성 122만원 순으로 나

타났다. 평균 희망 수입액은 127만원이었다. 향후 일을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알아본 결과, 1순위에서는 ‘자녀 교육비 충당’을 위해서가 31.0%로 가장 높고, ‘자기 발전을 위해’가 16.9%로 두 번째로 높은 취업 희망 이유였으며 ‘가족의 생계 유지’가 14.5%, ‘생활비 보충’이 14.2%였다. 2순위로는 ‘생활비 보충’(20.1%)이 가장 높았고, ‘가족의 생계유지’(18.5%)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이 두 항목은 1순위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많았던 취업 이유이다. ‘미래 대비’는 15.9%였으며, ‘본국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는 14.9%로 1순위에서 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4. 창업욕구, 희망 창업분야 및 창업과정에서의 어려움

창업욕구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517명 중 대다수인 77.6%가 창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여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출신국적별로는 태국 여성(87.5%)과 중국한족 여성(86.4%)이 ‘그렇다’고 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창업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일본 여성이 51.2%, 필리핀 여성이 3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창업분야는 전체 401명 중 도소매업이 34.4%로 가장 많았으며, 요식업이 26.2%, (여)학원이 20.9%, 그리고 제조

〈표 3-4〉 출신국적별 창업 희망 여부

(단위: %, 명)

| | 중국 조선족 | 중국 한족 | 베트남 | 일본 | 필리핀 | 몽골 | 태국 | 전체 | 차이검증 |
|-----|-----------|----------|-------|-------|-------|-------|-------|-------|--------------------------|
| 그렇다 | 76.7 | 86.4 | 78.5 | 48.8 | 63.4 | 66.7 | 87.5 | 77.6 | $\chi^2=35.41$ p<.001 |
| 아니다 | 23.3 | 13.6 | 21.5 | 51.2 | 36.6 | 33.3 | 12.5 | 22.4 |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사례수 | 43 | 184 | 163 | 41 | 41 | 21 | 24 | 517 | |

(표 3-5) 출신국적별 희망 창업 분야

(단위: %, 명)

| | 중국 조선족 | 중국 한족 | 베트남 | 일본 | 필리핀 | 몽골 | 태국 | 전체 | 차이검증 |
|--------|-----------|----------|-------|-------|-------|-------|-------|-------|---------------------------|
| 제조업 | 9.1 | 7.5 | 14.8 | - | 3.8 | - | - | 8.7 | $\chi^2=65.66$ $p<.01$ |
| 도소매업 | 21.2 | 30.2 | 36.7 | 20.0 | 42.3 | 57.1 | 61.9 | 34.4 | |
| 숙박업 | 3.0 | 4.4 | 1.6 | 5.0 | - | - | 4.8 | 3.0 | |
| 요식업 | 33.3 | 19.5 | 31.3 | 35.0 | 26.9 | 35.7 | 19.0 | 26.2 | |
| (어)학원 | 30.3 | 32.1 | 7.8 | 20.0 | 19.2 | 7.1 | 14.3 | 20.9 | |
| 인터넷쇼핑몰 | - | 3.8 | 5.5 | 15.0 | 3.8 | - | - | 4.2 | |
| 기타 | 3.0 | 2.5 | 2.3 | 5.0 | 3.8 | - | - | 2.5 |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사례수 | 33 | 159 | 128 | 20 | 26 | 14 | 21 | 401 | |

업 8.7% 순이었다. 여성들의 출신국적별로 희망하는 창업분야를 알아보면, 먼저 요식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몽골(35.7%)과 일본 여성(35.0%)의 비율이 높았고, 어학원은 중국 한족(32.1%), 중국 조선족 여성(30.3%)의 비율이 높았다. 태국과 몽골 여성은 도·소매업을 창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각각 61.9%와 57.1%로 타 출신국적 여성들보다 높았다. 아울러 베트남 여성들은 타 출신국적 여성들에 비해 제조업을 창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14.8%로 높았다.

한국에서 창업을 해보고 싶다고 응답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준비를 도와주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대다수인 97.0%가 '그렇다'고 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1순위는 대다수가 '창업자금 마련의 어려움'(87.0%)이라 답하였다. 그 다음은 10.7%의 응답자가 자격증 취득의 어려움을 꼽았다. 창업을 시작하는데 있어 느끼는 어려움의 2순위에는 '창업방법문제'가 35.2%로 가장 높았다. 자금의 문제가 우선적인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창업을 해야 할지의 문제가 당면한 어려움이었다. 그 밖에 '언어문제(19.2%)'와 '집안일 및 자녀 양육의 어려움(17.7%)'도 창업을 시도함에 있어 2순위의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했다.

(표 3-6)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느끼는 어려움

(단위: %, 명)

| | 1순위 | 2순위 |
|--------------------|-------|-------|
| 창업자금 마련의 어려움 | 87.0 | 11.3 |
| 자격증 취득의 어려움 | 10.7 | 13.8 |
| 언어문제 | - | 19.2 |
| 집안일 및 자녀 양육의 어려움 | - | 17.7 |
| 가족들의 반대 | 2.0 | 2.8 |
| 창업방법문제 | - | 35.2 |
|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해서 | 0.2 | - |
| 합계 | 100.0 | 100.0 |
| 사례수 | 401 | 355 |

IV. 결론 및 정책제언

지금까지 여성결혼이민자 취·창업관련 실태를 인적자본의 실태, 취업실태, 본국 및 한

국에서의 취업경험, 취업욕구, 창업욕구, 희망 창업분야와 창업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본국에서 취업을 한 비율은 높았으나, 한국에서는 자녀양육, 언어의 문제, 취업능력 등의 부족으로 실제 취업한 사람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형태는 대부분 단시간 고용으로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았으며, 당면한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창업자금마련의 어려움과 창업의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조사결과를 분석하면 출신국별로 인적자본의 특성, 취업실태, 경험, 취업욕구, 원하는 창업형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정책설계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끝으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창업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취업지원 방안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자본의 질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의 강화, 다양한 직종 및 취업처 개발, 자격증 제도의 보완 등이 요구된다.

1)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의 강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한국어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취업교육과 취업지원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한국어교육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적응에 있어 필수적이거나, 국적과 거주기간 등 개인적 차이를 반영한 전문적인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2) 다양한 직종 및 취업처 개발

다양한 직종 및 취업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많은 교육기관에서 아동영 어지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인은 한자지도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취업처 개발도 중요한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채용하여 역할모델을 육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3) 자격증제도의 보완

자격증 제도는 취업과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어에 서툰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관련 분야 전문적인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운전면허증과 같은 자격증은 다국어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4) 일-가정 양립지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이민자들이 구직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사 및 양육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의 일반 기혼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일-가정 양립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창업지원방안

1) 체계적인 창업지원

언어의 장벽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고, 직종에 있어서도 극히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창업은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매력적인 대안이다.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7.6%가 창업을 희망한다고 답하여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고학력의 특성을 보이는 일본 여성과 영어강사로의 취업이 용이한 필리핀 여성이 각각 51.1%와 36.6%로 창업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국적의 여성들은 대부분 창업에 강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창업교육에 대한 참가의사도 강해, 창업을 해보고 싶다고 응답한 여성들의 97.0%가 창업교육 및 준비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취업교육과 더불어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창업교육 및 지원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창업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공동체사업의 활성화, 창업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2) 여성결혼이민자 맞춤형 창업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개인별 특성의 차이와 함께 출신국별로 인적자본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필리핀 여성은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일정정도의 영어능력 보유가 이들의 취업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베트남이나 태국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손기술이 뛰어나고, 이들 국가의 전통음식이 시장에서 사업화될 수 있는 측면이 강해 경쟁력으로 부각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출신국별로 인적자원이 갖는 경쟁력에 기반한 맞춤형 창업교육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창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실무지원을 실시하는 등 이들을 위한 창업지원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3)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교육과 자조모임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이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취업의 경우 실무능력 배양과 기업연계가 중요하며,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 전 보육단계로서 사업을 직접 배우고 실천해 볼 수 있는 단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단계는 지역의 결혼이민자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충족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 사업의 사례로는 현재 안산에서 운영 중인 다문화 공방이 있다. 안산의 다문화 공방에서는 수작업에 경쟁력이 있는 이민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봉제기술도 익히고 정교한 수작업이 필요한 악세사리, 인형, 핸드폰줄 등을 제작하게 하여 사회단체, 기관등에 납품도 하고, 거리의 매대를 통해 직접 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문화 공방은 장기적으로는 개인이나 집단의 창업이 가능하도록 실전경험을 쌓고, 단기적으로는 경제적인 도움과 사회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4) 자금지원의 현실화

여성이민자들이 창업을 하는데 있어 느끼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응답자가 ‘창업자금 마련의 어려움’(87.0%)이라고 답하고 있어 체계적인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2008년 6월 사회연대은행에서는 삼성생명

과 공동으로 여성가장의 경제적인 자립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여성가장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이에 병행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중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이민자지원기관의 추천을 받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며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 2년 이내의 영세자영업자, 여성결혼이민자의 인력을 활용해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추진계획이 있는 이민자 지원기관의 실무자가 결합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창업자금지원을 시범 실시한바 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하며, 더욱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창업지원체계가 지원기관에서도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 상황이므로 일단은 창업지원체계의 기초를 마련하고, 자금지원에 대한 정보를 조직화하여 준비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국제결혼여성 이민자들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여성창업자금 지원정책에 여성국제결혼이민자를 위한 소액자금 대출등과 같은 제도를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경애, 김오남.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과정 어려움과 욕구에 관한 연구. 대불대학교 논문집 13.
- 2) 김두섭(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29(1), 25-56.
- 3)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 39(1), 159-193.
- 4) 김상임(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 3주년 심포지엄: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자료집.
- 5) 김애령(1998). 충남거주 조선족 여성의 결혼과정과 적응에 관한 연구. 충남도청.
- 6) 김영주(2006). 충남 국제결혼가족 실태 및 지원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7) 김오남(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9(3), 63-106.
- 8) 김은숙, 김승희, 김신영(2006).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지역사회적응 지원 실태조사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 9)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10) 김현미(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정치학. 경제와 사회 70, 10-37.
- 11) 민가영(2004). 글로벌자본과 로컬가부장의 충돌과 공모: 조선족 여성 이주를 둘러싼 조선족 사회의 '여성유실' 담론을 중심으로. 국가횡단시대 변화하는 아시아의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8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이화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 12) 민경자(2003). 충남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13) 박재규, 이윤애(2005).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북발전연구원.
- 14) 설동훈, 윤홍식(2005). 국제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15)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2006). 결혼이민자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16) 세계일보(2007). 박화서. 2007. 12. 13.

- 17)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여성결혼이민자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아시아여성연구 47(1), 139-178.
- 18) 신경희, 양성은.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5), 1-8.
- 19)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위홈(2003).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 20) 안혜령, 이순형(2009).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 비교. 아동학회지 30(1), 1-10.
- 21) 양순미(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 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 22) 오성배(2006). 한국사회의 소수민족 ‘코시안’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16(4), 137-157.
- 23) 우현경, 정현심, 최나야, 이순형, 이강이(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파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 아동학회지 30(3), 23-36.
- 24) 윤인진, 송영호(2009).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활모델로서의 창업: ‘시민자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1), 25-44.
- 25) 이금연(2003).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언을 위한 원탁토론회.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 26) 이순형(2006). 국제결혼 농촌 이주여성 가족의 정착지원방안. 농촌국제결혼 정착방안 세미나 자료집.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27) 이윤애(2004).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지원 방안. 전북여성발전연구원.
- 28)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29) 정기선, 김영혜, 박경은, 이은아, 박지혜, 이승애, 이지혜(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30) 정은희(2004). 농촌 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31) 정일선, 김명화(2004).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의 적응을 위한 정책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32)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19.
- 33) 한국염(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심포지엄: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자료집.
- 34) 한영현(2006).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실태 및 문제점.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실태조사 보고회 자료집.
- 35) 홍기혜(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 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6) 홍성희, 김성숙.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지원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 119-146.

- 투 고 일 : 2010년 1월 1일
- 심 사 일 : 2010년 1월 8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2월 18일